

2018
Vol. 2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8
Vol. 2



CONTENTS

- 03 미디어 파사드 도입을 통한 세종시 이미지 제고 방안 | 안 용 준 연구위원
- 06 세종시 창업생태계 진단과 구축 방안 | 김 성 표 연구위원
- 08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 이동 변화와 그 시사점 | 최 성 은 연구위원
- 12 세종시 여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민 경 선 연구위원



I. 미디어 파사드 개념 및 효과

● 미디어 파사드 개요

-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는 정보전달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가 합성된 용어로, 도시에 있는 빌딩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물의 면(面) 혹은 입체적인 구조물의 상(像)에 LED를 부착하거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의미함
- 미디어 파사드는 도심의 미적 경관 창출, 야간 명소의 발굴, 도시환경의 질 향상, 개성 있는 도시 정체성 구축 등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도시계획적 기능 및 효과

- 미디어 파사드는 ①주로 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어 랜드마크 효과 제공, ②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예술가에게는 창의성 발휘의 계기 및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효과 기대, ③미디어 파사드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촉진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도시의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개성 있는 도시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II. 국내외 미디어 파사드 사례

● 국내 사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서울의 도심 및 강남 지역의 주요 빌딩이나 경복궁, 덕수궁 등의 문화재, 공공기관 건물 및 시설, 각종 기업의 사옥, 구조물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음
- 서울스퀘어빌딩, 상암DMC 등이 건물 외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궁궐과 같은 문화재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는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람콘텐츠를 제공하게 됨
-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교각이나 임벽, 동굴, 폭포 등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에 단기 이벤트나 예술 작품의 설치를 통해 전시되는 경우도 있음

국내 미디어 파사드 사례



서울스퀘어



서울 경복궁



공주 공산성



청주 청주향교

미디어 파사드 도입을 통한 세종시 이미지 제고 방안

● 해외 사례

-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Vivid Sydney Festival)'은 빛, 음악, 아이디어를 컨셉으로 열리는 축제로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하여 시드니 항구를 따라 도심까지 늘어난 관광지, 빌딩 등에서 다양한 조명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Allianz Arena)는 공기가 들어가도록 특수 제작된 다이아몬드형 쿠션으로 파사드를 만들고, 그 안에 특수 제작된 형광램프를 사용하여 건물을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크라운 분수대(Crown Fountain)는 시카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하나이자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공공예술 작품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음
- 일본 도쿄 간자에 설치된 샤넬 타워는 높이 56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샤넬 매장으로 70만 개의 흰색 LED로 이루어진 유리 파사드를 가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위치한 쿤스트하우스(Kunsthau)는 현대미술관으로 굴곡지고 투명한 푸른색의 아크릴판으로 설계되었으며, 930개의 조명과 컴퓨터가 연결되어 각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

해외 미디어 파사드 사례



III.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도입 고려사항

● 입지 선정

-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자 최고의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의 이미지 및 지역성과 연계된 '도시정체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미디어 파사드의 랜드마크적인 속성은 도심의 공간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장소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의 변별성을 갖게 기여할 수 있음
- 세종시는 문화재가 양적으로 많지 않아, 세종시 내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적 측면에서 활용의 접근이 요구되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할 수 있음
- 공공건축물 중에서는 2019년 준공예정인 세종아트센터, 세종홍보관, 국립세종도서관 등이 미디어 파사드의 특성과 어울린다고 사료됨



●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 미디어 파사드의 콘텐츠는 표출하고자 하는 영상의 내용들에 있어 '공공성'과 '공간 이미지 형성'이라는 2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제작물이 되어야 함
- 세종시는 지역브랜딩이 필요하며, 지역브랜딩은 지역에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공동체 의식 및 주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줌
- 나라꽃인 무궁화, 세종대왕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장욱진 화백 등이 세종시 지역브랜딩을 위한 콘텐츠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적 고려사항

-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의 정체성, 도시경관, 시민의 정서적 심리, 정보성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음에도 사업비의 규모가 적지 않아, 도입시 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콘텐츠는 형평성을 위해 시민공모나 후보 작품들에 대해 시민투표 등 시민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거쳐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를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의 미디어 파사드는 사회가 의도하는 일정한 공공성이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도하는 방향에 대한 원칙적 기준의 제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IV.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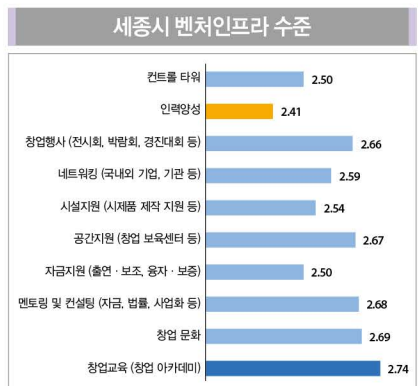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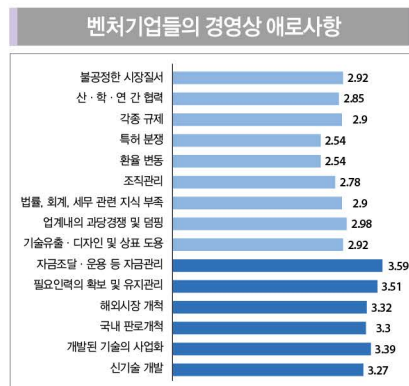
- 미디어 파사드의 의미와 공간상의 도시문화요소로서 역할이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 도입의 방향성과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근거로 구체적 도입 및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음
- 미디어 파사드의 도입목적은 구체화하여야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입목적의 구체화 정립 후에 미디어 파사드의 입지선정, 규모, 콘텐츠, 운영계획 등이 최적화될 수 있음
- 세종시 정체성 및 지역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의 차별화가 필요함
- 미디어 파사드 도입 초기단계에는 상시운영보다는 이벤트성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피드백과 시책효과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모면에서도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소규모 피사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한 이미지나 정보를 표출하여,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함
-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및 설치허용구역 등에 관한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추가하여 법적 실효력을 확보하며 '빛공해방지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 파사드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I. 제안배경

- 창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창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라 창업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세종시의 경우 아직 도시가 건설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와 함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 세종시 창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벤처기업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

II. 창업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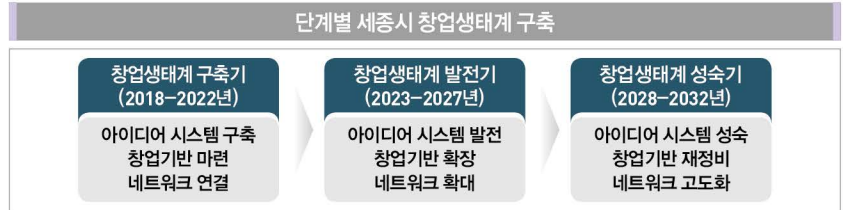
- 세종시의 창업은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
 - 세종시는 전국에 비해 창업 소요기간이 짧고, 창업관련 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 벤처기업은 2018년 2월 기준 88개로 전국의 0.25%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정보처리 S/W 분야가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 관리(3.59점),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3.51점), 해외시장 개척(3.32점), 국내 판로개척(3.30점), 신기술 개발(3.27점)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벤처인프라에 있어서 창업교육, 창업문화, 멘토링 및 컨설팅, 공간지원 등은 다른 분야 보다 높게 나타남
 - 확충되어야 할 부분은 인력양성, 컨트롤타워, 자금지원, 시설지원, 네트워킹 분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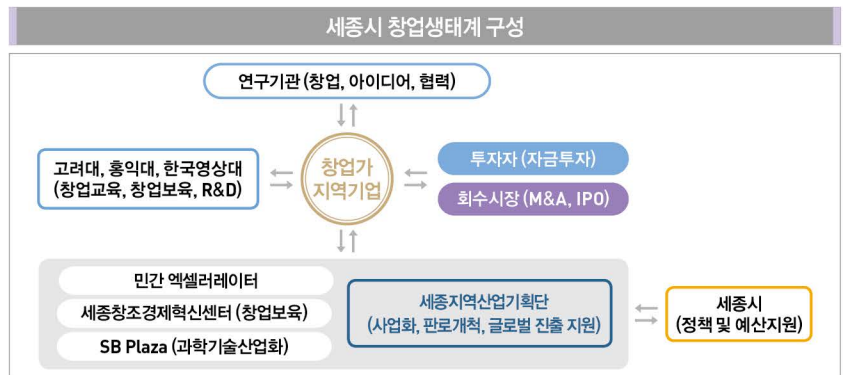


III. 정책제언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방안과 지원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 창업생태계를 구축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을 유도



- 세종시는 정책과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SB plaza는 창업보육과 과학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 지원



● 창업지원 정책은 지원대상과 분야를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고려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또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재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필요
- 지원분야에서는 첫째, 세종시 벤처펀드 조성 and 벤처캐피탈 연계 확대를 통한 자금지원, 둘째,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 셋째,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킹 확대, 넷째, 관내 대학과 주변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계한 R&D 지원, 다섯째,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사업화하고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창업생태계 구축 유도

I. 서론

● 세종시 지역 내 인구 이동 현황 분석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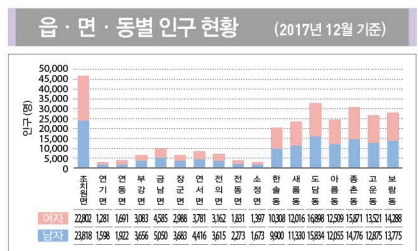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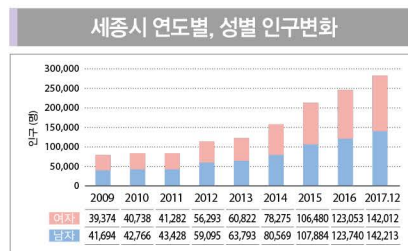
- 현재, 세종시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과거 도시계획 수립 차원에서 생활권역별 인구배분계획을 세웠으나, 이것으로는 장래 인구변동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나 지역 내 불균형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제는 세종시만의 인구대응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임
- 특히,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구역이라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세종시 읍·면·동 인구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나, 현재까지 읍·면·동별 인구 이동 현황을 정리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통계청 및 지방정부에서 생산되는 인구 이동 데이터는 대부분 시·도, 시·군·구별 현황까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2014년까지만 구득 가능함
- 이에 세종시의 읍·면·동별 인구 유출입 현황 파악을 위하여, 통계청 미시데이터(MDIS)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세종시 지역별 인구 이동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II.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 이동 동향 분석

●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구조의 특성

- 읍·면·동별 인구현황(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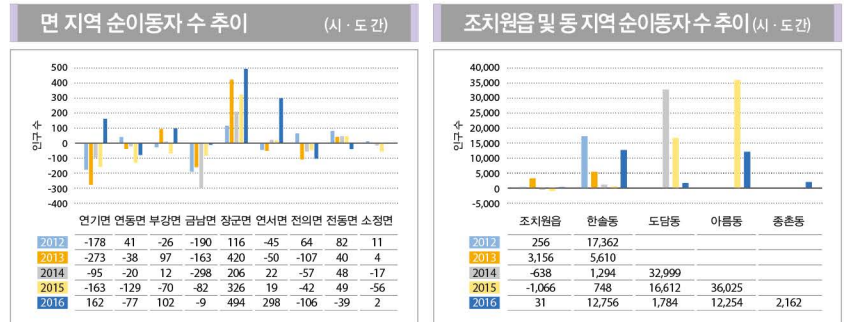
주 | 한솔동의 경우, 2017년 보람동과 새롬동으로 분동. 아름동은 동년 고운동이 분동되어 생긴 법정동임
출처 | 2017년 세종통계연보, 「2017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중 일부 재구성

- 세종시의 인구는 2012년 출범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284,225명을 넘어섰음(2018년 4월말 기준, 295,041명)
- 읍·면·동 지역별로는 신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조치원읍, 면 지역 순으로 조사됨



세종시 지역 내 인구 이동 규모의 변화 추이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서 시·도 간 이동을 한 순이동자 수의 읍·면·동별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그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짐



주 | 순이동은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의미함(전입·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온 경우, 전출·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자료 | 통계청 미시데이터(MDS)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재가공

- 순이동자 누계(2012~2016) 기준 순유출(전출초과) 지역: 금남면, 연동면, 연기면, 전의면, 소정면, 조치원읍 순으로 나타남
- 순이동자 누계(2012~2016) 기준 순유입(전입 초과) 지역: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순으로 나타남
- 면 지역의 경우, 5년 간 전입초과 범위가 500명 내외인 반면, 동 지역의 경우, 3만 6천명을 넘어서는 등 세종시 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인구 이동 규모의 차이가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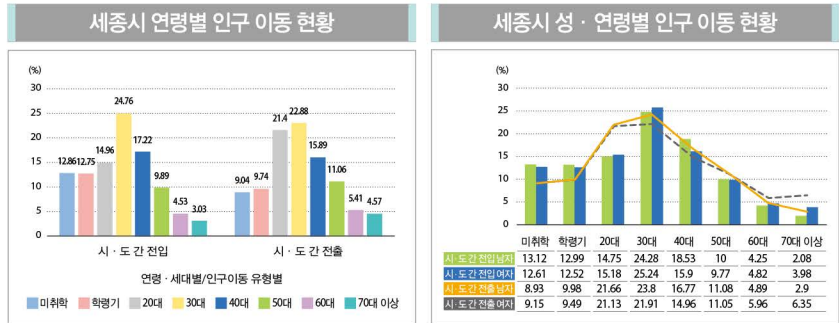
연령·세대별/성별 시·도 간 인구 이동 현황

- 학부모 세대(30~40대)의 성인과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미취학·학령기 아동이 세종시로의 시·도 간 전입을 이끌고 있다면, 전출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음
- 시·도 간 전입을 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4.28%, 25.24%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각각 18.53%와 15.90%를 차지함
 - 30~40대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시·도 간 전입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미취학 및 학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시·도 간 전입인구의 약 25.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성이 높음

1) 한편, 전입과 전출은 시·도 간과 시·도 내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시·도 간 전입과 전출은 시·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를 의미하며, 시·도 내 전입과 전출은 세종시 내에서 이동한 경우로 동일한 수치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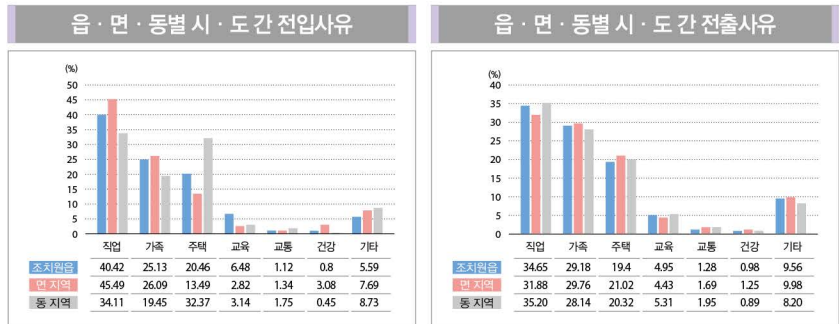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 이동 변화와 그 시사점

- 시·도 간 전출을 보면, 전입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에서 30대 비율이 각각 23.8%, 21.9%로 가장 높으나, 20대 전출자 비율이(남자 21.66%, 여자 21.13%) 뒤를 이어 높아, 30대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를 보임



주 | 2012~2016년 동안 발생한 전입·전출 누계를 연령·세대별, 성별로 나누어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 통계청 미시데이터(MDS)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재가공

시·도 간 전입·전출 사유



주 | 2012~2016년 동안 발생한 전입·전출 사유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 통계청 미시데이터(MDS)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재가공

- 2012 ~ 2016년 동안 발생한 시·도 간 전입 사유를 누계하여 그 비율을 종합해 보면, 직업) 가족) 주택) 기타) 교육) 건강) 교통 순으로 조사됨
 - '직업'으로 인한 세종시로의 전입의 경우, 조치원읍은 40.42%, 면 지역은 45.49%, 동 지역 평균은 34.11%로 조사됨
 - 신도심 지역인 동 지역일수록, 주택으로 인한 전입(32.37%)이 높음. 이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계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시·도 간 전출의 경우, 전출사유에 누적 합계 비율을 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 <가족> <주택> <기타> <교육> <교통> <건강> 순으로 조사됨
 - 전입의 경우처럼, '직업' 으로 인한 전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주목할 점은, '가족'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가 전입의 경우보다 높으며, 이는 읍·면·동 지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임
 - 따라서 '가족'으로 인한 전출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이는 가족의 문제는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이며, 향후 세종시가 정주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기준, 전입신고서의 사유조사 응답 항목 상 전출·전입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III. 시사점

● 세종시 지역 내 인구 불균형에 대한 대비 필요

- 향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제 5, 6생활권 입주계획 등에 따라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읍·면·동별 인구 이동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 이동 현황분석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재까지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 이동 현황 분석(2012~2014)은 충청지방통계청의 기획과제로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통계청의 지속적이며 공식적인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 이동 현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맞춤형 인구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서 향후 전입-전출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전입-전출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세종시의 인구 대응정책을 세우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필요

-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이 요청되나, 현재 세종시의 인구정책을 전담할 전문화된 부서는 부재하며, 인구 담당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출산율 1위와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이나, 아파트 입주계획과 같은 대규모 인구 유입 변수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인구 대응정책 설정이 요구됨
 - 인구대응정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동시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인 만큼, 담당 조직 마련을 통해,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준비를 시도해야할 것임

● 전입·전출 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 마련 필요

I. 제안배경

-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에서 여가시간, 일과 삶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 높아짐**
 - 웰빙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얼마만큼의 여가시간을 가지는가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으나 OEC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의 BLI 순위는 38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조사됨. 특히, 지수를 구성하는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는 35위로 최하위에 그침¹⁾
 -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Better Life Index」(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11개 영역에 해당하는 24개 지표로 구성)를 매년 발표
 - 한편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692시간보다 월등히 많음²⁾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 여가 현황에 기반한 여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OECD 조사결과는 우리사회가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세종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여가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여가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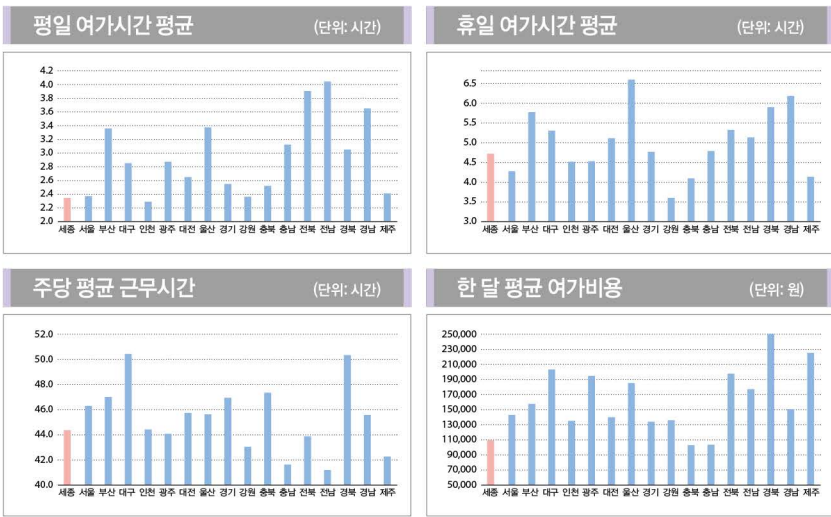
II. 세종시민의 여가생활 현황³⁾

- **세종시민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여가에 할애함**
 - 세종시민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2.34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2.29시간) 다음으로 가장 적으며, 휴일의 여가시간도 울산(6.59시간), 경남(6.20시간), 경북(5.89시간), 부산(5.77시간) 등 보다 비교적 적음
 - 평균 근무시간은 44.38시간으로 전국 평균 45.28시간 보다 다소 적었으나 전남(41.16시간), 충남(41.57시간), 제주(42.25시간), 강원(43시간) 등 보다는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할애함
 - 세종시민은 자신의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약 11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10만3천원), 충남(10만4천원)에 이어 가장 적었고 전국 평균(16만원), 경북(25만원), 제주(22만원), 대구(20만3천원)와는 큰 격차를 보임

1) OECD(2017). 「Better Life Index」.

2) 2015년 OECD가 수집·발표한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기준임.

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6세 이상 세종시민 112명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현황을 살펴보고, 여가 활성화 방안을 기초적 수준에서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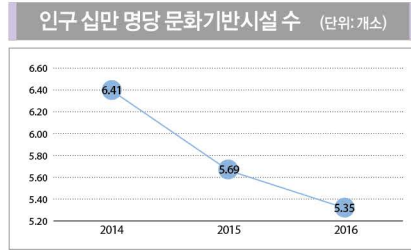


- 여가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세종시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여가활동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12.50%), 그렇다(78.57%), 매우 그렇다(8.93%)의 결과를 얻음

삶에 미치는 여가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0	0.00	12.50	78.57	8.93

- 빠르게 증가하는 세종시 인구에 상응하게 문화기반시설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4년 6.41개소, 2015년 5.69개소에서 2016년 5.35개소로 감소
-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의 감소를 반영하듯,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1.6%로 상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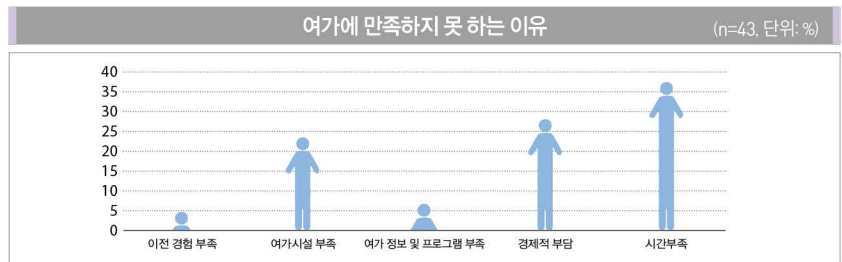
세종시 여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자료 다운로드: 2018.5.28).

여가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자원 및 시설이 부족할 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함

-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세종시민만을 대상으로 불만족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 부족(37.21%), 경제적 부담(27.91%), 여가시설 부족(23.26%),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족(6.98%), 이전 경험 부족(4.65%) 등이 여가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 |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3명만을 대상으로 분석.

세종시의 여가현황에 대한 종합분석

- 세종시민은 여가를 위해 비교적 적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음
- 세종시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세종시민의 비율은 상당히 낮음
- 여가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 여가시설 부족은 이들의 여가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세종시민이 여가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III. 여가 활성화 방안 제안

- 세종시의 여가 현황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종시의 여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세종시민의 여가시간은 비교적 적고 경제활동 시간은 많음. 이들은 여가참여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자원 및 여가시설이 부족할 때 불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임
 - ⇒ 여가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권 인식 확산과 생활밀착형 여가시설 확충 필요
 - 세종시민은 여가 정보 및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전의 여가활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신의 여가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여가 접근성 개선의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여가제약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맞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해야 함
 - ⇒ 풍부한 여가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복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여가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민의 여가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여가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사업 개발이 필요함

여가여건 개선방안 제안		
구분	추진 방향	제안 내용
여가 참여 기반 마련	여가권 인식 확산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 여가인식 교육,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홍보
	여가시설 확충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문화시설 조성,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여가 접근성 개선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 확대	생애주기별 여가제약 조사, 생애주기에 맞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여가 프로그램 홍보 확대	공간별 · 지역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스마트여가정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여가 진흥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여가 전문인력 통합관리, 여가시설에 전문가 배치
	세종시민 여가현황 파악	세종시민의 여가생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
	여가산업 육성	민간과 협력적으로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4)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6월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

<http://www.dsi.re.kr>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 530-3500 Fax. (042) 530-3528

발행인. 박재묵 편집인. 이윤희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